

보란 듯 ‘빠꼼빠꼼’ 그리고 ‘툭’...

누웨마루거리· 제주시청 주변 등 흡연 눈살 마스크 벗고 담배 피다 버젓이 풍초 무단투기 주변상인 “매일 서너번 청소... 제지 쉽지않아”

담배를 핀 뒤 길가에 풍초를 버리는 비양심 행위로 인해 제주시내 거리가 얼룩지고 있다.

29일 저녁 제주시 누웨마루거리 곳곳엔 무단투기된 담배풍초를 쉽게 발견할 수 있었다.

일부 불지각한 사람들이 식당, 주차장 인근에서 흡연 한 뒤 땅바닥에 버리는 모습이 종종 목격됐다. 인근에 쓰레기통이 있어도 흡연자들은 아랑곳 않고 거리에 풍초를 던졌다. 심지어 마시던 커피컵 등 쓰레기도 마구잡이로 버리기도 했다.

게다가 금연구역에서 담배를 피는 사람들도 쉽게 목격됐다.

일부 흡연자들의 이같은 몰상식 행동들로 인해 인근 상점가는 물론 담배를 피지 않는 도민과 관광객들이 불만을 쏟아내고 있다.

상인 박모(55)씨는 “하루에 2~3번 상점 앞을 청소한다”며 “버리지 말라고 하면 손님이 안 올까봐 이리저리 저러지도 못한다”고 토로했다.

비흡연자인 도민 김모(24·여)씨는 “담배연기를 굉장히 싫어하는데, 아무데서나 흡연하는 행위로 냄새를 맡아야 해 머리가 아픈 적이 많다”며 “남에게 피해를 주는 행위는 하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제주시청 대학로, 제주대학



누웨마루거리(사진 위)와 제주시청 대학로 주변에 버려져 있는 담배풍초들. 강민성기자

교 정문 인근에도 담배풍초들이 사방에 날브러져 있어 눈살을 찌푸리게 했다.

자치경찰에 따르면 흡연을 한 뒤 담배풍초를 무단투기하면 경범죄처

벌법에 따라 3만원의 범칙금이 부과된다.

담배풍초 무단투기 범칙금 부과 건수는 ▷2017년 309건 ▷2018년 448건 ▷2019년 232건 ▷지난해 126건 ▷올해 59건이다.

부과 건수가 줄어든 이유는 코로나19 확산세로 인해 사회적거리두기가 강화되면서 야간시간대 활동에 제약이 받고 있어서다.

따라서 코로나가 발생했던 지난해와 올해를 제외하면 해마다 수백건씩 무단투기 행위가 적발되고 있는 것이다.

자치경찰 관계자는 “담배는 기초식품이지만 많은 곳에서 흡연하게 되면 남들에게 피해를 줄 수 있어 자제해야 한다”며 “무단투기 행위는 범칙금 대상이어서 성숙한 시민의식으로 정해진 규칙을 지켜주시길 당부 드린다”고 밝혔다.

강민성기자

카지노 채용청탁 무죄 전 공무원 재임용 논란

도 “대법원 최종 무죄 판결 채용하는데 법적 문제 없어”

재판부 “대가성 인정 안돼도 깨끗한 행위는 아냐” 꾸짖어

카지노 채용 청탁 비리 의혹에 연루돼 재판을 받았던 전 제주도 카지노 주무부서 과장이 다시 같은 직위에 임용돼 논란이 일 것으로 보인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초대 제주도 카지노감독과장을 지낸 고모(56)씨를 신입 과장으로 임용했다고 30일 밝혔다.

고씨는 2015년 8월부터 2019년 8월까지 4년간 초대 제주도 카지노감독과장을 지내고 퇴직했다. 고씨는 올해 7월 진행된 신입 카지노감독과장 공개 모집에 응모했으며 제주도는 서류와 면접 심사를 거쳐 그를 최종 합격자로 선정했다.

제주도는 “그동안 현장경험을 바탕으로 제주형 카지노 정책을 성공적으로 이끌어 양질의 일자리 창출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임용 이유를 밝혔다.

고씨는 과거 신화역사공원에서 채용 청탁 비리 의혹에 연루돼 재판을 받았었다.

당시 판결문을 보면 고씨는 카지

노감독과장으로 재직하던 지난 2017년 11월 3일 신화역사공원 개발업체인 람프제주개발 전 인사부사장에게 카카오톡으로 부하 직원 딸 이력서를 직접 보냈다. 또 고씨는 “잘 부탁 드린다”는 메시지도 보냈다.

부하 직원 딸은 같은해 12월 4일 람프 측에 취업했으며 하루 뒤 람프 측은 하얏트호텔에 있는 랜딩카지노를 제주신화월드로 확장·이전하기 위한 신청서를 제주도에 제출했다.

당시 검찰은 고씨의 이같은 행위가 카지노 확장·이전을 돕는 대가로 부하 자녀의 취업을 부정하게 청탁한 것으로 보고 제3자 뇌물수수 혐의를 적용해 재판에 넘겼지만 1·3심 재판부는 “직무 대가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며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다만 재판부는 무죄를 선고하면서도 “피고인의 행위가 전혀 죄가 되지 않는 깨끗한 행위는 아니었다”고 꾸짖었다.

제주도는 고씨의 재임용에 대해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도 관계자는 “이미 대법원에서 최종 무죄 확정 판결을 받았기 때문에 채용하는데 법적으로 문제가 될 것은 없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도내적으로도 전혀 문제가 없느냐”는 질문에는 “채용 심사 과정에서 위원들이 잘 판단하지 않았겠느냐”고 답했다. 이상민기자 hasm@ihalla.com

동거녀 살해·지인 상해 60대 검찰 결심공판서 ‘사형’ 구형

제주에서 흥기를 휘둘러 동거녀를 살해하고, 지인에게는 중상을 입힌 60대에 검찰이 사형을 구형했다.

제주지방법검찰청은 30일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장찬수 부장판사)의 심리로 열린 임모(60)씨의 결심 공판에서 사형을 구형했다. 임씨의 혐의는 살인이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임씨는 지난달 1일 새벽 제주시 이도동 소재 아파트에서 동거녀 A(45)씨를 흥기로 살해한 뒤 곧바로 또 다른 아파트에 살고 있던 B(66)씨에게 찾아가 흥기를 휘둘러 중상을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범행 동기는 A씨와 B씨가 자신 몰래 성관계를 했다고 의심하면서다.

특히 임씨는 지난 2008년 6월 16일 또 다른 동거녀의 내연남에게 흥기를 휘두르는 등 2번의 살인미수 전력도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이날 검찰은 “피고인은 동거녀 살해 직후 지인을 추가로 살해하려는 등 극단적으로 살인 범행을 감행했다”며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에 대한 책임 자체를 피해자들에게 돌리면서 진지한 반성이나 후회도 하고 있지 않다”고 사형 구형 이유를 설명했다.

재판부는 28일 선고 공판을 진행할 예정이다.

송은범기자



오징어 말리는 자구네포구 30일 제주시 환경연 자구네포구에서 한 상인이 오징어를 말리고 있다. 이상민기자

만취운전 접촉사고낸 경찰간부 ‘해임’

경찰청 29일 징계위 개최 과거 음주운전 전력 들통

만취 상태에서 운전대를 잡았다가 접촉사고를 낸 제주경찰 간부가 해임됐다.

30일 제주경찰청에 따르면 지난 29일 징계위원회를 열고 경찰청 소

속 A경위에 대해 해임 처분을 의결했다.

A경위는 지난달 6일 오후 11시쯤 제주시 이도2동에서 술에 만취한 상태로 차량을 주차하기 위해 10m가량 후진하다 주차된 차를 들이받았다. 사고 당시 A경위의 혈중 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치였던 것으로 전해진다.

또 A경위는 과거 음주운전으로 적발돼 징계를 받은 적이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해임 처분은 경찰공무원 징계 규칙 상 파면 다음으로 처벌 수위가 높은 중징계다. 다만 파면과 달리 연금 보상 불이익은 없고, 3년간 공직 임용이 제한된다.

한편 제주지방법검찰청은 A경위에 대해 벌금 1000만원에 약식기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강민성기자 kms6510@ihalla.com

‘호의’를 ‘살인’으로 값은 30대 노숙인 지법 “죄질 극히 불량”... 징역 25년 선고

호의를 살인으로 값은 30대 노숙인에게 법원이 중형을 선고했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장찬수 부장판사)는 30일 살인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고모(32)씨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고씨는 지난 3월 3일 오후 10시쯤 서귀포시 소재 A(40대)씨의 주거지에서 술을 마시던 중 A씨를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함께 술을 마시는 과정에서 일어난 말 다툼이 살인으로 이어진 것이다.

경찰 조사 결과 주거가 부정한 상태인 고씨는 사건 전날인 2일 서귀포시 자구리해안에서 A씨를 처음 만났고, 이후 함께 일용노동을 하기로 약속하면서 A씨의 집으로 향한 것으로 파악됐다.

재판 과정에서 고씨의 변호인 측

은 고씨가 심신미약 상태로 범행을 저질렀다며 정신감정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고씨가 군 복무 당시 학대를 당하는 등 정신적으로 온전치 못하다는 것이다. 형법 제10조에 따르면 심신장애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자에게는 형을 감경한다.

장 부장판사는 “범행 수법이 상상을 초월하는 등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면서 “특히 피해자는 극심한 고통 속에서 생을 마감했고, 유족들도 시신을 제대로 확인하지 못할 정도로 고통을 받으며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다만 피고인이 정신질환으로 말미암아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결정 능력이 미약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덧붙였다.

송은범기자 seb1119@ihalla.com

진정한 제주축의 보약 120년의 역사 (독일 수입)

페르카칼슘+코코리비료

미늘·더덕
썩음병, 균핵병 예방

오래 기간 지속되는
N20 균형잡힌 질소
공급의 효과 60일

연작장애
토양 속독 살균

방이벌레 등 유해
곤충에 의한 피해 경감

강력한 라임효과
높은 저항성

Cocoly
Powerful

용량 : 20kg

달팽이추출물 해충물질을 토양의 pH를 맞춰주는 역할, 양분용량을 방지하고 수분 보유력을 올려줌

PAA 염류집적을 개선하며, 비료 흡수를 상승 및 방해, 건조 등의 저항력을 올려줌

바실러스 유기물 분해를 촉진하고, 토양질병의 발생을 감소시킴. 비료 흡수율을 올려줌

호소당밀 과실의 색상을 증진시키고, 맛을 개선시켜줌. 식물의 필요에너지를 제공함

펄빅산 토양의 pH 농도를 개선시켜 주며, 양분의 저장고 역할과 효과를 연장시켜줌

PGA 앞은 막을 형성해 뿌리를 보호하며, 양수분을 뿌리 깊이 전달하는 역할을 함

약소바실러스 미생물 살균제로 토양의 세균성 질병의 확산을 제어하는 역할을 함

발근제 천연성분으로 주근의 성장을 향상시켜서 심근을 유도하고 미세근 발달을 촉진함

농가작업인부 지원(과수원 발작업)

사용할수록 토양이 좋아지는 스마트비료

농업회사법인 코스텍비료(주) 제주시 정실동길75(애초로) 오라CC사거리 동쪽
TEL : 745-8900, HP : 010-9258-7508

허가번호 제주 18-2017-2002호

감귤요목

유라조생	4년생
황금향	5년생
감평(레드향)	3,4년생
한라봉	4년생
천혜향	4년생
성전온주생	2년생
유라조생	1년생
천혜향	1년생
감평(레드향)	1년생
탱자묘	1년생

유라조생 접수분양계약

한림종묘사

010-3690-2453

감귤 신품종 분양

2022년 봄 출하예정 묘목 분양

만감류
레드향(무독), 천혜향, 황금향, 원터프린스, 제라론(레몬), 한라봉, 탐나는봉, 사랑향(신품종천혜향), 나스미(카라향), 탐빛1호, 명유자, 아파나스

조생
유라조생, 하계조생, 궁천 오하라베니(궁천변이치), 히로시마 7호, 일남1호, 탱자묘목(1000본 이상)

농장위치 서귀포시 안덕면 서광리 850-6번지 (평화로 서광주유소에서 모솔포 방향 300M 위치)

종자업등록번호 : 18-2003-20-09

오하라베니
자원묘목 착과모습

자원종묘

010-2691-1883